

성혜연<sup>1)</sup>, 장세연<sup>1)</sup>, 최지애<sup>1)</sup>, 손지훈<sup>2)</sup>

HY Sung MSW, SY Jang PRN, JE Choi PRN, JH Sohn MD, PHD

## 초록

- **연구목적** :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의 정신보건 예산, 시설현황, 인력등의 인프라 및 등록 대상자 현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서울시의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서울시정신보건 인프라 현황에 대한 주요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됨.
- **연구방법** : 본 조사연구는 서울시비 지원 약 170개 정신보건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4월, 2017년 3월 수행됨. 6개영역 2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조사표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데이터는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됨. (※본 조사는 조사시행연의 전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것이며, 분석항목일부에 대한 결과를 본 연구집에 수록함)
- **연구결과** : 서울시의 정신보건예산은 2015년 대비 2016년 6.7% 증가, 정신보건기관수는 2015년 대비 2016년 1.2% 증가함. 서울시 정신보건기관 인력은 2015년 대비 2016년 2.3%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전문요원의 수는 2% 증가함. 등록 대상자 현황에 있어서는 2015년 대비 2016년 25.6% 감소했고 2016년 기준 등록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유형의 경우 정신병적 장애(F20-29) 45%, 기분장애(F30-39)34%, 소아청소년기 행태 및 정서장애(F90-98) 11%로 나타남. 또한 등록대상자의 자살사망은 2015년 31명에서 2016년 18명으로 42%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 서울시의 정신보건 예산, 인력, 기관은 매년 양적 팽창을 하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수요대비 인프라 공급에 대한 적정량에 대한 추계와 이에 기반한 서울시정신보건정책 수립이 필요함.
- **주요용어** : 서울시정신보건 인프라 (예산, 인력, 시설현황), 서울시정신보건기관 이용대상자 현황(기관유형, 진단유형, 기관유형별 등록대상자 자살사 현황)

## Abstract

- **Objective** : This survey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budget, facilities, personnel, etc.) and registration target status for the purpose of: 1) providing basic reference, which can be utilized in establishing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policies; and 2) developing key indicators of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status.
- **Methods** : This survey study was done on around 170 mental health centers suppor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April 2016 and March 2017 through a questionnaire composed of 28 detailed items in 6 fields and some data collected from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This study conducted year-on-year comparison of mental health center status in 2016 and 2017 and contains analysis results of some part of questionnaire items)
- **Results** : In 2016,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mental health budget rose 6.7%, mental health center figures increased 1.2%, mental health center employee figures grew 2.3%, and mental health specialist figures increased 2%, whereas registration target figures decreased 25.6% and suicide death committed by registration targets declined 42% from 31 cases to 18 cases. As for mental health problem type of registration targets, psychotic disorder (F20-29) accounted for 45%, mood disorder (F30-39) 34%, and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90-98) 11% as of 2016.

1)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